

# 산 위의 요새 고산준령의 무릉도원



김성후 교수의  
자동차로 유럽여행 2부

## <12> '미니국가' 산마리노 공화국

2월 초 어느 날 아침에 자동차로 베네치아를 떠나 적벽돌 토타워의 도시 볼로냐, 그리고 갈대기 무성한 개천에 불과하지만 도강은 의미가 있는 루비코강을 건넜다. 이어 남진하여 어둠이 깔리자 산 위의 요새같은 산마리노 공화국에 도착했다.

가파른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경사가 심한 산상까지 오를 때 왜 이렇게 높은 곳에 국가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날은 어둡고 곳은 날씨가 어둡어졌으니 가로등 불빛이 밝은 산상에 이르렀어도 휴식이 우선이었다. 사진 답사 겸 야경도 구경하기 위해 여장을 풀 후에는 외출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날 아침은 쾌청했다. 다만 산하와 먼 산에 이불솜 같은 구름이 군데군데 걸려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청명한 창공과 고산을 엮어 펼쳐진 비경은 환홀했다. 높은 산상의 햇살은 눈부시고 푸른 창천은 하얀 구름과 대조를 이루니 천하절경이 따로 없었다.

이 날이 그름 며칠 전이었다면 '제월'이라는 비가 갠 뒤의 맑은 아침 달도 볼 못했다. 우리 지역의 풍영정은 관산 8경이자 영산강 8경이라서 '풍영아우'라 극찬받는다. 그렇듯 밤비가 그친 이국의 승경을 갑자기 맞닥뜨리니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슴이 활짝 열렸다. 천산만학(千山萬壑)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산상의 맑은 공기는 담양 소재원의 제월당에서 마시는 공기처럼 소쇄하였다.

여기 산꼭대기에 있는 소도시를 국가라고 하니 평생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심히 궁금했다. 소국이라고는 하지만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역 동북쪽에 위치한 어엿한 공화국이다. 정식 명칭은 산 마리노공화국(Republic of San Marino)으로 티타노산의 서쪽 사면에 위치한다. 동

쪽으로는 아드리아 해안에서 가깝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산의 동쪽 사면에 공화국이 위치했다면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느껴졌을 것이다. 이런 위치 때문에 겨울철 고산지역에 내린 많은 눈이 그늘진 곳에서는 잔설로 남아 있었다. 골목길 귀퉁이로 치워 놓은 눈은 푸근한 겨울 날씨일지라도 성벽 그늘 아래 수북이 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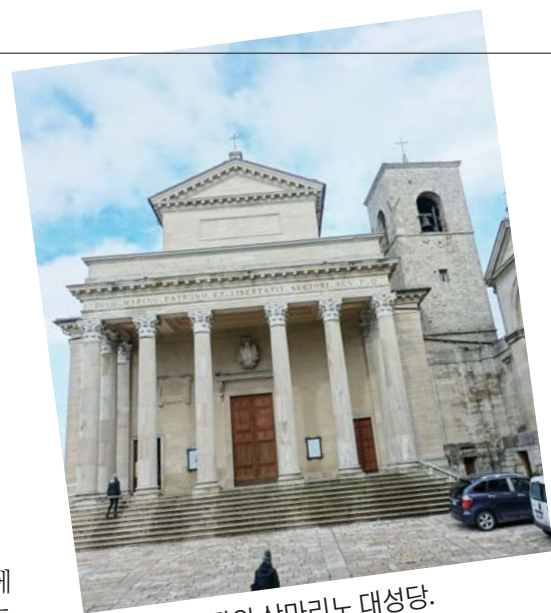
이 나라는 희한하다. 국경이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인데 면적은 광주 동구보다 약간 넓은 61km<sup>2</sup>이고 인구는 3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소국 맞인지 수도 이름도 산 마리노(San Marino)이다. 국민중엔 이탈리아계의 산마리노 원주민도 더러 있는데 외부인의 눈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하여간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이탈리아인들이며 그래서 모두들 가톨릭 교도들이다.

소국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보다 소득이 거의 두 배나 높고 엄연한 의원내각제의 공화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니까 국방대책이 있겠지만 여행객의 눈으로는 군인은 커녕 경찰마저 전혀 볼 수 없었다.

단지 성채 관광지에는 대포로 무장했던 요새도 있고 길거리에는 세계 각국의 무시무시한 도검류를 공공연히 기념품으로서 여러 곳에서 팔고 있었다. 옛날에는 자주 국방을 위해 민병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사도 정신을 중요시하여 도검류에 대한 각별한 애착문화가 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장도나 일본도가 금기시되고 불온하니 세상은 넓고 다양하다.



산마리노 공화국의 도시와 산하.



리베르타 광장의 산마리노 대성당.

산마리노는 1862년 당시 왕국이었던 이탈리아와 우호협력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이다. 이 좁은 땅에 나라가 들어설 수 있는 것도 바티칸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유럽인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네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내 모든 시민이 역내에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이주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전력도 수원지도 없으니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약 몇 차례 갱신해 가면서 독립된 공화국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 상비군을 가지지 않지만 필요시 16세부터 55세까지의 국민을 민병대로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박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도검문화가 확산되어 있다. 전쟁으로 역사를 이어온 인류문화에서 각 나라의 특색을 각종 도검은 훌륭한 장식품이다. 이곳의 도검 장식문화는 어찌 보면 영원한 독립국으로서의 자유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었다.

산마리노를 여행하기 위해선 동쪽 해안휴양도시 리미니가 거점이 되지만 우린 자동차를 이용하니 안중에 없었다. 리미니에선 보통 버스로 거의 한 시간 걸려 이 도시에 올라간다는데 우린 북서쪽 더욱 먼 거리 볼로냐에서 한 시간만에 달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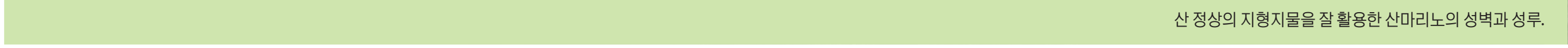
다음날 소쇄한 산공기를 들이마시며 성채에 들어가니 중세시대로 여행하는 듯 싶었다. 어쩌면 산 정상 암반을 기반삼아 성벽, 망루, 성당을 아슬아슬하게 지어놓을 수 있는지!

유럽에서 세 번째 소국인데 로마 황제시대에 한 석공이 기독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 신앙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게 발전하여 현 공화국의 정신적 모태가 되었고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유지하였다. 그래도 세상은 변하여 유럽연합국은 아니지만 2002년부터 자체 통화를 포기하고 유로를 사용한다. 그렇게 여행객의 불편을 덜어주니 관광입국이 아니겠는가.

모나코 다음의 소국이라도 리베르타 광장이 있고 거기에 대성당이 있다. 전면에 이색적인 대리석 조각상을 가진 푸블리코 궁전도 명소인데 지금은 시청이라도 정오경엔 근위병의 교대식도 절도있게 이루어진다. 그래도 일개 나라이니 5유로에 기념 목적의 여권도장도 찍어준다

성채 뒤쪽의 트레킹 코스엔 남녀 산악 자전거팀까지 올라와 유럽의 자유로움을 보여주었는데 길 옆엔 연리지도 한 그루 있었다. 이탈리아에선 동양인이 가진 애뜻한 연리지 개념이 없으니 기묘한 연리지라도 길가의 단순한 나무에 불과했다. 따라서 젊은 서양 연인들이라도 우리처럼 절절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나무를 붙들고 사진을 찍을 일이 없다. 실제로 눈여겨봐도 길가 연리목은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동신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산 정상의 지형지물을 잘 활용한 산마리노의 성벽과 성루.

## 10주년 광주여성영화제 '춤추며 가자'

내달 5~10일 ACC·독립영화관서 50편 상영

제10회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재희)가 오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는 '춤추며 가자!'다. 여성이 춤출 수 있는 세상,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 모두가 함께 춤출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손을 맞잡고 춤추며 나아가는 여성들의 몸짓에 주목하는 다양한 영화들과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포스터 역시 눈길을 끈다. 김복동 할머니가 여성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가는 모습을 김화순 작가의 스타일로 그려냈다.

개막작으로는 박소현 감독의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가 선정됐다. 이 영화는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보여준다.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던 청년들이 자립을 고민하며 통일장엄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밀려 통일부장관상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엄혹했고,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세상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호남선이 시작되는 목포역에서 서울역을 지나 베를린까지 9편의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



며 기저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그러나 돌아온 이곳에는 갈내해야 하는 현실이 있었다. 영화 연출을 전공한 박 감독은 오랫동안 10대들과 영상작업을 해왔다. 그는 2018년 장편 다큐멘터리 '구르는 돌처럼'으로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한국장편경쟁 작품상, 15회 EBS국제다큐영화제에서 시청자·관객상을 수상했다.

폐막작은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광주여성영화제가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순학·정나라 감독의 '어쩌다 10년'이 선정됐다. 이밖에 영화제 기간 50여편이 상영된다. 광주 여성감독 특별전 '허지은'과 한국영화 100주년 여성캐릭터 다시보기 등도 만나 볼 수 있다.

## '떠오르는 마음, 마주하는 영혼'

내년 광주비엔날레 본격 가동...참여작가 일부 공개  
GB토크, '2020광주비엔날레 퍼블릭 프로그램' 성료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2일 내년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GB토크, 2020광주비엔날레 퍼블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예술감독, 참여작가, 연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GB토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퍼블릭 프로그램은 2020광주비엔날레에 초대된 참여 작가들의 1차 국제 리서치 일정과 예술감독의 작가 연구를 위한 방향 기간에 맞춰 추진됐다.

전시기획의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오갔던 이야기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포럼 및 대담, 퍼포먼스,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첫 날인 1일 행사는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마켓에서 데프네 아이아스와 나타샤 진발라 예술감독이 2020광주비엔날레 전시방향을 공유하는 브리핑으로 시작했다.

2020년 열리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떠오르는 마음, 마주하는 영혼(국문가제) Minds Rising, Spirits Tuning'이라는 주제 아래 예술적이고 이론적인 기제로서 확장된 마음의 스펙트럼을 탐구해 인간의 지성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풀어낼 계획이다.

데프네 아이아스와 나타샤 진발라 예술감독은 비



지난 1일 진행된 'GB토크, 2020광주비엔날레 퍼블릭 프로그램'에서 예술감독이 내년 전시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서구 세계에 자리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생활 체계와 공동의 생존을 위한 예술적 실천에 방향성을 두고 전시, 퍼포먼스 프로그램, 온라인 출판 플랫폼, 작가들과 사상이 및 이론 과학자 등을 초대한 퍼블릭 포럼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저항의 역사와 공동의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스며있는 도시 광주에서 그 역사를 의식한다는 전제와 함께 마음을 확장할 수 있는 실천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전시 기획의도라는 것.

두 감독은 "5월 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40년을 앞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의 여러 갈래의 문과 길을 오가는 과정을 통한 치유, 저항, 재구성의 고유한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시방향 발표 이후 작가들의 발제, 작가와 연구자와의 대담이 이어졌다.

2일에는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인근에서 작가 퍼포먼스와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진행됐다. 안젤로 플라사스는 디오니시안과 인도 의식을 따른 고대 의식 바탕으로 한 의식 퍼포먼스를 용봉동 중외공원 팔각정에서 펼쳤다. 조현택 작가와 김상문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대화도 광주비엔날레 제13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한편 이번 퍼블릭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 9명을 포함한 2020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 리스트의 일부도 공개됐다. 현재 2020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로 선정된 작가는 파시타 아바드, 코라크릿 아룬나차이, 세실리아 벵골리아, 인주 첸, 조현택, 바지날 데이비스, 파트리샤 도밍게스, 시안 데이빗, 존 제레드, 소니아 고메즈, 트라잘 헤럴, 린 허쉬만 리슨, 교즈데 일린, 김상문, 김실비, 릴리안 린, 캔디스 린, 에모 데 메데이로스, 아나 마리아 밀란, 키라 노바, 페르난도 팔마 로드리게스, 오우티 피에스키, 안젤로 플라사스, 갈라 포라스-김, 주디 라들, 세헤지 라할, 자를비 세타와이트, 알렉산드라 수하레바, 시셀 툴라스, 세실리아 비쿠냐, 쉐인 등 31명이다. /이연수 기자